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설 디원 지정 말의 장원이라 하는 지 벼슬이 한원의 잇더니 원이 망하고 디명이 증흥하미 시절을 피하여 티안주 이릉산의 숨어 스더니 일일은 장공이 일몽을 어드미 남전산 신령이 불너 니르디 시운이 불니하여 ㉠ 조만(早晚)의 디화 이슬 거시니 빗비 써나라 하고 간 디 업거늘 장공이 씨여 부인더러 몽스를 니르고 즉시 부인을 닛거논 옛길홀 찾더니

[A] 문득 풍위 니러나며 홍의동지 압히와 급히 비러 왈 소즈의 명이 경직의 이스니 부인은 구하소서 부인이 디경 왈 선동의 급한 일은 무슴 일이며 우리 엇지 구하라 하나뇨. 동지 발를 구르며 왈 소즈는 동히 농왕의 제삼지라 남히왕이 되어 부뷔 친영하여 오다가 동히 호상의 남섬 진주 요괴를 만나 농녀를 아스 가려 하미 둘이 ㉡ 합력(合力)하여 싸호다가 농녀는 힘이 진하여 죽고 소지 또한 나히 어련고로 신통을 부리지 못하여 다라닐시 밋쳐 슈부로 드지 못하고 인세의 먼니 나미 괴력이 진하여 다시 다라닐 곳이 업는지라. 바라건디 부인은 잠간 입을 버리시면 몸을 피하고 후세의 ㉢ 은혜(恩惠)를 갑하리이다 하거늘 부인이 잠간 입을 버리미 농지 몸을 흔드려 붉은 괴운이 되어 들거늘 부인이 삼키고 보니 홀연 텃지 아득하며 광풍이 니러나고 고이흔 소리 진동하는지라.

공의 부뷔 급히 돌 틈의 숨엇더니 이윽고 벼름이 굶치고 일식이 명낭하거늘 겨우 길을 촛조 굴밧기 나오니 이곳은 티안고당주 접경이라. 비록 산협이나 민회 부요하고 인심이 순후하더라. 그 중의 입결소의하며 살신성명하는 지 만하니 빅성들이 의지업는 스름을 붓드려 구하할시 장공의 거지 단아하고 연시 온공하를 보고 이증하여 혹 집터도 빌니며 혹 농업을 ㉣ 분작(分作)하며 조식 닛는 지 닛토아 슈학하기를 원하니 일노 인하여 싱계 유족하니 호칭 산인이라 하더라.

초설 처시 스속 업스믈 미양 슬허하더니 일일은 일몽을 어드미 텃디 혼혹하며 구름속으로서 청봉이 내려와 닛갑을 벗고 변하여 선비 되어 압히 나아와 니르디 조식의 급한 거슬 구하시니 은혜 난망이라. 갑홀 벼를 아지 못하더니 오늘 옥데 조회를 벼드시고 텃상 텃하의 원굴흔 거슬 삶피실 시 남히 농왕의 펠녀는 나의 며나라라. 저의 신훈하여 오다가 요귀에게 죽고 원혼이 옥데기 발원하디 옥데 금광으로 하여곰 쾌히 보유크하라 하실시 농조도 인세의 니여 보니여 미진흔 인연을 다하라 하시니 니 금광에게 청하여 그디 집의 정하엿나니라 하고 간 디 업거늘 씨여 부뷔 서로 몽스를 닛너 ㉤ 압희(暗喜)하더니 과연 그달 붓터 텃기 잇서 십삭이 초미 일기 옥동을 싱하니 얼굴이

남전산의서 보던 선동갓튼지라. 비록 강보이나 용피 웅위하고 괴질이 준일하니 닛흠을 히룡이라 하고 조를 응턴이라 하다.

호시다마는 고금상시라. 이찌 텃지 슈명어텃히시나 히니 미정하여 혹칭 위왕하고 혹칭 조왕하여 남셔로 노략하니 일경이 진동하여 ㉥ 피란(避亂)하는 지 무슈흔지라.

[B] 장처시 이중의 셋겨 피란할 시 추병이 급흔지라. 히룡을 서로 돌너 업고 닛더니 괴력이 진하미 부인이 울며 왈 이 으히를 보전하러 하면 우리 세히 다 죽을 거시니 상공은 우리 모조를 잠간 브리고 피하 엿다가 모조의 히골이나 거두소서 하거늘 처시 참아 브리지 못하여 서로 붓들고 통곡하더니 도적이 점점 갓가온지라. 처시 울며 히룡을 브리고 가즈 하며 지촉하거늘 부인이 홀 일 업서 히룡을 길가의 ㉦ 안치(安置)하고 달니여 왈 우리 잠간 다녀올 거시미 이 실과를 먹고 안져스라 하니 히룡이 울며 한가지로 가지라 하거늘 처시 조흔 말노 달니고 부인을 지촉하여 다라닐 시 거롬마다 도라보니 히룡이 부모를 부르며 슈히 오라 당부하는지라.

이찌 도적이 오다가 히룡을 보고 죽이려 하니 그 중 장삼이란 도적이 말너 왈 어린 으히 부모를 닛코 우는 거슬 무슴 일 죽이려 하나뇨 하고 업고 오다가 싱각하되 니 위세의 ㉧ 꺾박(逼迫)하여 군오의 물입하여스니 엇지 본심이리오. 또 이 으희 상을 본즉 귀히 될 괴상이라 이 찌를 타 다라나리라 하고 짐짓 완완히 가다가 강남 고군으로 다라나니라.

이적의 처스 부뷔 잠간 피하엿다가 도피 요적하를 보고 산의 내려와 보니 히룡이 간디 업는지라. 부인이 가슴을 두다려 왈 아조 일홀 줄 아더면 무슴 표를 두어 촛줄 찌 보람이 될 거슬 창졸의 싱각지 못하엿스니 장성하여 촛즌들 엇지 알니오. 처시 위로 왈 히룡의 등의 불근 스마피 칠성으로 응하여스니 엇지 몰나보리오 하며 두루 도라 찾더니 조장 위세기의 잡힌 비되어 장하의 드러가니 위처스의 표일흔 괴상을 보고 앓겨 그민 거슬 글너 장중의 울너 니히로 권유하니 지괴 상합흔지라. 즉시 참모를 하이엿더니 참모의 ㉨ 현칙(賢策)으로 연경 구천니르를 어드니 일노 인하여 남셔의 저근 성지를 갈희여 한가히 쉬라 하니 처시 부인으로 더부러 뇌양현으로 가니 뇌양현은 셔촉지계니 산텃이 험준하미 빅성이 병혁을 모로는지라. 처시 도입흔 후 ㉩ 안업(安業)하여 정시 공평하미 일경이 안업하고 낙쵸의 즐겨하는 소리 원근의 들니더라.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내면의 도덕적 결함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심리적 혼란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공은 남전산 신령의 경고를 듣고 즉시 피란길에 올랐다.
- ② 태안의 백성들은 장공의 단아한 모습과 공손한 말투를 보고 환대하였다.
- ③ 장공의 부인은 홍의동자의 간청을 듣고 그를 입속에 넣어 숨겨주었다.
- ④ 장공은 피란 중 도적을 만나자 해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였다.
- ⑤ 장삼은 해룡의 비범한 관상을 보고 그를 죽이려는 무리로부터 구해냈다.

03

[A]에 나타난 홍의동자의 발화와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분을 속여 부인의 자비심을 시험하려 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부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절박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도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부인과의 전생 인연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⑤ 요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인의 신통력을 빌리려 하고 있다.

04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지않아 닥쳐올 미래의 시점을 나타낸다.
- ② ㉡: 여러 주체가 힘을 합쳐 하나의 목적을 수행함을 뜻한다.
- ③ ㉢: 토지를 나누어 경작하거나 공동으로 농사지음을 의미한다.
- ④ ㉣: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뻐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 ⑤ ㉤: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대피함을 강조한다.

0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다루는 영웅 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탄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강(謫降)' 모티프는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와 시련을 겪으며 인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인물들이 겪는 고난은 개인의 불운이라기보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시운)에 의한 것으로 묘사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과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 강조된다. 또한, 인물 간의 보은(報恩) 관계는 서사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 ① 장공이 신령의 경고를 듣고 피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보다 시대적 흐름인 '시운'에 의한 고난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홍의동자가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의 인간과 결합하여 적강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군.
- ③ 장처사 부부가 해룡을 길가에 안치하고 떠나는 행위는 인연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웅의 시련에 해당하겠군.
- ④ 장삼이 해룡을 구출하여 강남으로 달아나는 것은 조력자의 개입을 통해 주인공의 생명이 보존되는 영웅 소설적 특징을 드러내는군.
- ⑤ 장처사가 위세기의 참모가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은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06

[B]에서 해룡을 대하는 장처사 부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인은 자식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남편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장처사는 부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가족의 동반 자결을 주장하고 있다.
- ③ 부부는 해룡의 비범한 능력을 믿고 그가 스스로 살아남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 ④ 장처사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해룡을 유기함으로써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고 있다.
- ⑤ 부인은 해룡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0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 간의 관계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미래의 보답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복선을 형성한다.
- ② ㉡: 인물들이 평온한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다.
- ③ ㉢: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비정한 행위처럼 보이나, 실상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을 드러낸다.
- ④ ㉣: 장삼이 도적이 된 이유를 제시하여, 그의 본성이 악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⑤ ㉥: 장처사가 위세기를 배신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기만적 수단을 의미한다.

08

해룡을 잃은 후 장처사 부부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책과 후회 → 체념과 수용 → 새로운 희망의 모색
- ② 분노와 원망 → 복수의 다짐 → 허무주의적 태도
- ③ 공포와 전율 → 안도와 평안 → 과거에 대한 망각
- ④ 슬픔과 비탄 → 위로와 격려 → 현실에 대한 충실
- ⑤ 의구심과 불안 → 확신과 기대 → 적극적인 탐색

09

윗글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의동자는 자신의 비극적 처지를 서술하며 상대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② 부인은 홍의동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의구심을 담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③ 장처사는 부인에게 해룡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장삼은 동료 도적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역설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있다.
- ⑤ 위세기는 장처사에게 이익과 손해를 들어 설득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10

윗글의 사건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신령의 경고와 피란 → (나) 용자와의 만남과 태안 정착
→ (다) [빈 칸] → (라) 장처사의 관직 등용과 선정

- ① 요괴의 침입으로 인한 태안 백성들의 수난
- ② 전쟁의 발발과 가족의 비극적인 이별
- ③ 해룡의 무예 수련과 도적 집단 소탕
- ④ 장처사와 장삼의 극적인 상봉과 화해
- ⑤ 용왕의 보은으로 인한 전쟁의 종결

11

윗글에서 '장처사'가 '뇌양현'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들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란 중 도적에게 잡힘 → 위세기의 인정을 받음 → 참모로서 공을 세움
- ② 해룡을 찾기 위해 산을 헤매 → 위세기를 우연히 만남 → 뇌양현 현감에 임명됨
- ③ 태안 백성들의 추천을 받음 → 조정의 부름을 받음 → 서촉지계의 안정을 위해 파견됨
- ④ 용왕의 꿈을 꾸고 계시를 받음 → 위세기의 진영을 찾아감 → 지략을 발휘하여 승리함
- 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함 → 평화로운 곳을 찾아 떠남 → 뇌양현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정착함

12

윗글에 나타난 '해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생에 남해왕이었으나 요괴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인물이다.
- ② 태어날 때부터 남전산에서 본 선동과 같은 비범한 외모를 지녔다.
- ③ 부모와 이별할 때 실과를 먹으며 암전히 기다리라는 당부 를 들었다.
- ④ 장삼에 의해 구출된 후 부모를 찾기 위해 강남 고군으로 스스로 도망쳤다.
- ⑤ 등에 붉은 사마귀가 있어 나중에 부모가 알아볼 수 있는 표 식이 된다.

13

윗글의 공간적 배경인 '태안'과 '뇌양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①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여 인물들이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 ② 인물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거지이다.
- ③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나 인심이 후하고 도덕적 가치 가 중시되는 곳이다.
- ④ 주인공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은 장소이다.
- ⑤ 천상계의 인연이 현실 세계의 보상으로 구체화되는 환상적 공간이다.

14

윗글의 전반부(이릉산~태안)와 후반부(피란~뇌양현)를 연결하 는 서사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은 전반부의 위기를 예고하고 후반부의 인연(해룡의 탄 생)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 ② '용자(홍의동자)'는 전반부에서 구원을 받는 대상이었으나, 후반부에서는 장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서사를 이끄는 주체 가 된다.
- ③ '전쟁'은 전반부의 평화로운 정착 생활을 파괴하고, 후반부 에서 인물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동력이 된 다.
- ④ '붉은 사마귀'는 전반부의 용자와 후반부의 해룡이 동일 인 물임을 증명하는 신체적 표지로 기능한다.
- ⑤ '위세귀'는 전반부의 요괴와 대립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장 처사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도록 돕는 결정적 조력자가 된다.

15

윗글의 '장공(장처사)'과 '장삼'의 공통된 면모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혼란에 휩쓸려 본심과 다 른 삶을 살고 있다.
- ② 뛰어난 지략을 바탕으로 난세를 평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한다.
- ③ 혈연 관계를 중시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 해 끝까지 헌신한다.
- ④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영웅적 기상을 보여준다.
- 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이상적인 공동체 를 실현하려 한다.

01 서술상 특징 파악

개념혼동

정답: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서사 구조와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처지 변화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장공(장쳐수)은 이릉산에서 은거하다가 태안으로 이동하여 농업과 교육에 종사하고, 다시 피란 중에 위세기를 만나 참모가 된 후 뇌양현의 현감이 되는 등 공간 이동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물의 외양 묘사(용피 용위 등)는 긍정적 기상을 드러낼 뿐 도덕적 결함을 암시하지 않는다.
 ③ 서술자의 개입(호시다마는 고금상시라 등)은 있으나 인물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평가보다는 상황의 보편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④ 꿈은 미래를 예시하거나 인연을 설명하는 장치일 뿐 심리적 혼란을 극대화하는 용도는 아니다.
 ⑤ 자연 경관 묘사보다는 인물의 행적과 사건 전개에 집중하고 있다.

02 내용 일치 확인

인과역전

정답: ④ 장공은 피란 중 도적을 만나자 해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였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사건의 구체적 경로와 인물의 대응 방식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에서 장공(장쳐수)은 도적이 가까워지자 기력이 다하여 해룡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안치하고 부인과 함께 피란하였다. 끝까지 저항했다는 서술은 지문에 없다.

[오답 풀이]

- ① 첫 문단에서 신령의 말을 듣고 즉시 부인을 이끌고 옛길을 찾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② 태안 백성들이 장공의 거지 단아함과 언사 온공함을 보고 애중히 여겨 도움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A] 구간에서 부인이 입을 벌려 용자를 삼켜 피하게 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장삼이 해룡의 상을 보고 귀히 될 기상이라 여겨 구출하여 달아난 내용이 확인된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부분→전체

정답: ③ 절박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도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홍의동자는 자신이 요괴에게 쫓겨 기력이 다했음을 알리며 (절박한 위기), 부인에게 입을 벌려달라는 구체적인 도피 방법을 제시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자는 자신의 신분(동해 용왕의 삼자)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② 위기 상황에서의 구원 요청은 맞으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은 없다.
 ④ 후세의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할 뿐, 전생 인연을 근거로 회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 요괴를 피해 몸을 숨기려는 것이지, 부인의 힘을 빌려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0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유사어혼동

정답: ⑤ ㉞: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대피함을 강조한다.

[출제의도]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지문의 상황과 연결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㉞ '안업(安業)'은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함을 의미한다. 지문에서는 장쳐사가 정치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대피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 '조만(早晚)'은 '이르거나 늦거나 간에 곧'이라는 뜻으로 미래의 위기를 예고한다.
 ② ㉡ '합력(合力)'은 용녀와 용자가 힘을 모아 요괴와 싸운 상황을 적절히 설명한다.
 ③ ㉢ '분작(分作)'은 백성들이 장공에게 농사지를 땅을 나누어 주거나 함께 일하게 한 맥락에 부합한다.
 ④ ㉤ '암희(暗喜)'는 꿈의 내용을 통해 자식을 얻을 것을 알고 부부가 속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다.

05 종합적 감상

인과역전

정답: ⑤ 장쳐사가 위세기의 참모가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은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문학적 개념(적강, 시운, 보은 등)을 지문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⑤ 장처사가 위세기의 참모가 된 것은 잡힌 처지에서 위세기가 그의 기상을 아껴 권유했기 때문이며, 지기 상합(뜻이 맞음)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를 아들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나 '보는 관계'의 직접적 결과로 보는 것은 지문의 인과 관계와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신령이 '시운이 불리하여'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용자가 부인의 몸 안으로 들어간 후 해룡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전형적인 적강 모티프다.
 ③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이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 단계다.
 ④ 장삼은 해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위기에서 구해주는 전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06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맥락이탈

정답: ⑤ 부인은 해룡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출제의도]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와 행동의 동기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부인은 해룡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죽어야 한다고 울며 말하고, 해룡을 길가에 안치할 때 실과를 주며 달래는 등 죄책감과 함께 아이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나중에 '무슨 표를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부인이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살리려 한 것이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② 장처사는 차마 버리지 못해 통곡했을 뿐, 동반 자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확신을 가지고 버린 것은 아니다.
 ④ 장처사는 부인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냉철한 판단이나 가문의 대를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07 표현상의 특징

조건누락

정답: ⑤ ㉔: 장처사가 위세기를 배신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기만적 수단을 의미한다.

[출제의도]

밀줄 친 구절의 서사적 기능과 인물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㉔ '현책(賢策)'은 장처사가 참모로서 위세기에게 내놓은 어진 계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을 세워 뇌양현으로 가게 된 것이지, 위세기를 배신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용자가 은혜를 갚겠다고 한 것은 나중에 해룡으로 태어나는 복선이 된다.
 ② 피란은 가족 이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③ 안치(安置)는 버리는 행위이지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④ 핏박에 의해 군오에 들었다는 것은 장삼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08 인물의 정서 변화

선택지재구성

정답: ④ 슬픔과 비탄 → 위로와 격려 → 현실에 대한 충실

[출제의도]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정답 풀이]

- ④ 해룡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부인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비탄), 장처사는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부인을 달랜다(위로). 이후 뇌양현에서 정치를 공평하게 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오답 풀이]

- 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구체적 행동(찾으러 떠남 등)보다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
 ② 도적이거나 상황에 대한 복수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과거를 망각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슬픔이 안도로 바로 바뀌지도 않는다.
 ⑤ 적극적인 탐색보다는 위세기에게 잡히고 참모가 되는 등 타의에 의한 상황 변화가 크다.

09 담화 방식 분석

개념혼동

정답: ④ 장삼은 동료 도적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역설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있다.

[출제의도]

인물 간 대화의 양상과 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장삼은 아이를 죽이려는 도적을 말리며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냐'고 반문할 뿐, 도덕적 가치를 역설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탈출을 꿈꾸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자가 자신의 가족이 죽고 기력이 다했음을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② 부인이 '선동의 급한 일은 무슨 일이며 우리 어찌 구하라 하느냐'고 묻는 장면이다.
 ③ 해룡의 등에 있는 붉은 사마귀(칠성)를 언급하며 부인을 위로하는 장면이다.
 ⑤ 위세기가 장처사에게 '이해로 권유'했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10 서사 구조 파악

사건순서뒤집기

정답: ② 전쟁의 발발과 가족의 비극적인 이별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사건 흐름을 인과관계에 따라 구조화한다.

[정답 풀이]

- ② 태안 정착 이후 '천재 수명어천하시나 해내 미정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장쳐사 부부가 해룡을 길가에 버리고 떠나는 이별의 사건이 발생한다.

[오답 풀이]

- ① 요괴는 태안 정착 전의 사건이며, 태안 백성들은 오히려 장공을 도왔다.
③ 해룡의 성장은 지문 이후의 일이며 무예 수련 내용은 없다.
④ 장쳐사와 장삼은 지문 내에서 만나지 않는다.
⑤ 전쟁은 장쳐사가 뇌양현으로 간 후에도 지속되는 분위기이며, 용왕의 보은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11 인과관계 추론

인과역전

정답: ① 피란 중 도적에게 잡힘 → 위세기의 인정을 받음 → 참모로서 공을 세움

[출제의도]

지문의 후반부에 나타난 장쳐사의 신분 변화 과정을 인과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장쳐사는 아들을 찾다 위세기에게 잡혔으나, 위세기가 그의 기상을 보고 참모로 삼았고, 이후 참모로서 '연경 구천 리'의 공을 세워 뇌양현으로 가게 되었다.

[오답 풀이]

- ② 위세기를 만난 것은 잡힌 결과이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③ 태안 백성들의 추천이나 조정의 부름과는 관련이 없다. 위세기는 반군 세력의 수장이다.
④ 용왕의 꿈은 해룡의 탄생과 관련이 있을 뿐 관직 등용과는 무관하다.
⑤ 스스로 평화로운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운 대가로 위세기에 의해 보내진 것이다.

12 세부 정보의 정밀 파악

부분→전체

정답: ④ 장삼에 의해 구출된 후 부모를 찾기 위해 강남 고군으로 스스로 도망쳤다.

[출제의도]

주인공 해룡의 탄생, 특징, 이별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해룡이 강남 고군으로 간 것은 장삼이 그를 업고 달아난 결과이지, 해룡 스스로 부모를 찾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홍의동자가 자신을 '남해왕이 되어'라고 소개하며 요괴에게 패했음을 밝히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② 탄생 시 '남전산에서 보던 선동 같은' 외모와 '용모 웅위'함이 묘사되어 있다.
③ 부인이 해룡을 안치하며 '이 실과를 먹고 앉았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 ⑤ 장쳐사가 해룡의 등에 있는 '붉은 사마귀 칠성'을 언급하며 재회의 희망을 품는 장면이 있다.

13 주제 의식 추론

조건누락

정답: ③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나 인심이 후하고 도덕적 가치가 중시되는 곳이다.

[출제의도]

지문에 등장하는 주요 공간의 성격과 그곳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을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태안은 '산협이나 민회 부요하고 인심이 순후'하며 살신성명하는 자가 많은 곳이고, 뇌양현은 '산천이 험준하여 백성이 병혁(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곳이다. 두 곳 모두 지리적으로는 험하지만 도덕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오답 풀이]

- ① 두 공간 모두 전쟁의 직접적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으로 묘사된다.
② 태안에서는 신분을 숨겼으나(산인), 뇌양현에서는 현감이라는 공적인 신분으로 활동한다.
④ 장쳐사가 선정을 베풀긴 했으나, 영웅적 능력으로 적을 물리친 공간은 아니다.
⑤ 뇌양현은 관직 수행의 공간으로, 환상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14 작품의 유기적 이해

개념혼동

정답: ⑤ '위세기'는 전반부의 요괴와 대립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장쳐사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도록 돕는 결정적 조력자가 된다.

[출제의도]

작품의 전·후반부를 관통하는 서사적 장치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위세기는 장쳐사를 등용한 인물이지만, 전반부의 요괴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거나 가족을 되찾도록 돕는 조력자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쳐사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참모로 활용한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신령의 꿈과 용왕의 꿈이 각각 피란과 탄생의 계기가 된다.
② 홍의동자가 장쳐사 부부의 아들 해룡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지문의 핵심이다.
③ 전쟁으로 인해 태안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세기를 만나게 된다.
④ 붉은 사마귀 칠성은 해룡의 정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복선이 다.

15 인물 간 관계 분석

맥락이탈

정답: 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혼란에 휩쓸려 본심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출제의도]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두 인물의 공통적인 실존적 상황을 포착한다.

[정답 풀이]

- ① 장쳐사는 은거하려 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참모와 현감이 되었고, 장삼은 '위세에 휩박하여 군오에 몰입'했으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두 인물 모두 시대적 압력에 의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장쳐사는 지략이 있으나 난세 평정의 야망은 없으며, 장삼은 도망치는 처지다.
③ 장쳐사는 해룡을 유기했고, 장삼은 해룡과 혈연 관계가 없다.
④ 장쳐사는 도움을 받지만 장삼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며, 둘 다 운명을 개척하는 주도적 영웅의 모습은 아직 부족하다.
⑤ 장쳐사는 현감으로서 이를 실천하지만, 장삼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